

# 日本에서의 DIGITAL CINE ANGIOGRAPHY의 現狀과 展望

加賀 勇治

山形大學醫學部附屬病院 放射線部

The present and future of digital cine-angiography in Japan  
Dept. of Radiology, Yamagata University Hospital  
Yujikaga

..... 近年에 이르러 各種 의료 영상의 digital 화 및 digital 保存이 急速히 발전,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X-선, CT, MRI영상 등에 비해서 특히 心血管造影 映像의 digital화는 늦어지고 있다. 35mm cine film과 비교한 화질의 문제, 다른 modality에 비해서 많은 data량 및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점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裝置 메이커는 여러 가지 解決方法을 제안하고 있으나 종류별 標準化를 지향하는 메이커의 獨自인 것으로 되어 아직까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서구의 학회가 중심이 되어 심장 영역의 영상의 標準化가 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digital cine화가 넓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electronic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번 강연은 일본에 있어서 digital cine의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 현재 상태의 digital 영상의 평가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山形大에서 도입한 100만 화소 CCD camera가 탑재된 D/F장치를 중심으로 digital cine화로 향해 가는 技術을 소개하고 장래 전망에 대해서 제언하는 바이다.

\* 제 53회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대회장